

“5년간 AI·웹3 생태계에 10조… 디지털자산 글로벌 선도”

네이버-두나무, 글로벌 비전

‘에이전틱 AI’ 새 기회 열리는 시점 양사, 글로벌 혁신 도모에 뜻 모아 AI·블록체인 결합 금융인프라 설계 새로운 글로벌 플랫폼 질서 만들 것

한 가족이 된 네이버와 업비트 운운사 두나무가 오는 5년간 10조원을 인공지능(AI)과 웹3 생태계에 투자하기로 했다.

네이버와 네이버파이낸셜, 두나무는 27일 성남시 네이버1784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결합을 통한 글로벌 진출 비전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간담회는 26일 각사 이사회를 통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포괄적 주식 교환을 통해 두나무를 네이버 계열로 편입하는 ‘기업융합’을 의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네이버와 금융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 두나무는 전날 각각 이사회를 열고



27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네이버 1784에서 진행된 네이버-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3사 공동 기자회견에서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가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네이버

포괄적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했다. 두나무는 네이버파이낸셜의 자회사이자 네이버의 손자회사가 됐다. 주식교환 비율은 양사의 기업 가치와 주식 수를 고려한 1대 2.54로, 두나무 1주를 네이버파이낸셜 2.54주로 교환하는 방식이 됐다.

간담회에는 이해진 네이버 의장, 송치형 두나무 회장과 김형년 부회장, 최수연 네이버 대표와 오경석 두나무 대표, 박상진 네이버파이낸셜 대표 등 3사 최고 경영진이 모두 참석했다.

최수연 대표는 “블록체인 대중화 흐

름과 AI가 스스로 판단하고 일을 처리하는 에이전틱(agentic) AI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이 맞물린 현재의 기술적 모멘텀은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중요한 시점이며, 이 기회에 글로벌에서 새로운 혁신을 도모하자는 것에 네이버와 두나무는 뜻을 함께했다”며 이번 기업 융합의 배경을 설명했다.

송치형 회장은 “3사가 힘을 합쳐 AI와 블록체인이 결합한 차세대 금융 인프라를 설계하고, 지급결제를 넘어 금융 전반, 나아가 생활 서비스까지 아우르는 새로운 글로벌 플랫폼 질서를 만들어가고자 한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해진 네이버 의장은 “네이버의 AI 역량은 웹3와 시너지를 발휘해야만 차세대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며,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이 글로벌 디지털 금융산업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빠른 의사결정 체계가 필요하고, 아직 글로벌 기업들이 하지 않는 새로운 시도와 도전을 해야 그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네이버와 두나무는 향후 5년간 10조

원을 AI·웹3 생태계에 투자할 계획이다. 국내 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기반 생태계 조성하고 활성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0조 원은 GPU와 같은 기반 투자와 인재들에 대한 투자가 우선시 될 예정이다.

웹3는 중앙기관 대신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소유권과 거래 기록을 관리하는 ‘분산형 인터넷’ 개념이다. 이용자가 데이터와 자산을 직접 보유하고, 토큰으로 참여·보상 구조를 설계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송 회장은 “3사가 힘을 합쳐 AI와 블록체인이 결합한 차세대 금융인프라를 설계하고, 지급결제를 넘어 금융 전반 나아가 생활 서비스까지 아우르는 새로운 글로벌 플랫폼 질서를 만들어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도 “앞으로 대부분 자산이 블록체인 위에 올라가 유통되는 토큰화가 확산될 것”이라며 “이번 기업융합을 통해 국경이 없는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한국이 선도하는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KB 손해보험

차중위성 3호, 지상교신 성공

KAI, 중형위성 표준 플랫폼 갖춰
향후 위성 수출 사업화 적극추진
“민간 주도의 우주 산업화 전환점”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27일 총괄주관으로 개발한 차세대중형위성 3호(차중위성 3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됐다고 밝혔다. 누리호에 실려 발사된 차중위성 3호는 이날 오전 1시 13분 발사된 후, 오전 1시 55분 지상기지국과의 첫 교신을 통해 정상 작동을 확인했다.

KAI가 총괄 주관하여 제작한 차중위성 3호는 우주기술확보와 우주과학임무 수행을 위해 제작된 위성으로 기존 1호기에서 개발한 표준플랫폼 기술을 활용해 KAI가 독자적으로 국내 개발한 중형급 위성으로 3개의 탑재체는 3개의 기관에서 각각 개발을 수행했다.

차중위성 3호는 향후 3개의 탑재체를 활용 ▲지구 오로라 및 대기관 관측(한

국천문연구원) ▲우주 플라즈마-자기장 측정을 통한 전리권 교란현상 관측(KAIST) ▲바이오 3D 프린팅 기반 줄기세포 3차원 분화배양 검증(한림대학교) 임무를 수행한다.

KAI는 차세대중형위성 개발 사업을 통해 확보한 갖춘 중형위성 표준 플랫폼의 글로벌 경쟁력과 국산화 기술을 활용하여 향후 위성 수출 사업화 역시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체 주도의 저비용 다용도 중형급 위성 개발 능력을 바탕으로 KAI의 항공기 수출과 연계한 남미, 중동, 동남아시아 등 해외시장 수출 사업화의 가능성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아울러 차중위성 3호 개발은 향후 해외수출을 목적으로 전 부품 ITAR-FREE 부품을 적용했고 유사 성능의 해외 위성 대비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추진계 3종의 국산화 또한 진행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LG이노텍 신임 사장에 문혁수 승진

» 1면 ‘기술통 류재철…’서 계속

냉난방공조 역량 강화를 위해 담당 조직들도 재편했다. 먼저 지분투자자와 M&A 등 기회 발굴을 맡는 ES M&A 담당을 신설한다. 해외 지역 현지 완결형 사업체제 구축을 지원하는 ES해외 영업담당도 새로 만든다.

LG화학에서는 약 7년간 전지 소재 등 신성장 미래 사업과 글로벌 경영 기반을 마련했던 신학철 부회장이 세대교체를 위해 용퇴하고 김동준 첨단소재사업본부장이 신임 CEO로 선임됐다.

1968년생인 김 사장은 한양대학교에서 공업화학을 전공하고, 미국 워싱턴

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MBA)를 취득했다. 1996년 LG화학에 입사한 이후 반도체소재사업담당, 전자소재사업부장, 첨단소재사업본부장 등 첨단소재 분야를 주요 거쳤다.

LG이노텍의 경우 문혁수 대표이사가 신임 사장으로 승진했다.

문 사장은 특히 차량용 AP 모듈·FC-BGA를 필두로 한 반도체용 부품 사업부터 라이다(LiDAR)·레이더(Radar) 등을 포함한 자율주행 센싱 부품 사업, 나아가 로봇용 부품 사업까지 회사의 원천기술을 확대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미래사업을 가속화해 왔다.

/양성운 기자 ysw@